

A218

Aconitum uchiyamai Nakai complex (미나리아재비과)의 종생물학적 연구

오상훈*, 박종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Aconitum uchiyamai complex는 *A. uchiyamai* (그늘들쩌귀), *A. triphyllum* (세잎들쩌귀), *A. proliferum* (싸눈바꽃), *A. pseudoproliferum* (개싸눈바꽃), *A. chiisanense* (지리바꽃) 및 *A. jaluense* (투구꽃)의 형태적으로 매우 유연관계가 깊은 한반도산 6 종을 포함하고 있다. 본 complex의 분류군들은 대부분의 주요 식별형질에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의 변이를 나타내어 분류학적 타당성, 한계 및 계급 설정에 있어 많은 분류학적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으며, 학자에 따라 이들 종 모두를 동일 분류군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A. uchiyamai* complex에 속하는 종들을 대상으로 수리분류학적 및 생식적 격리에 관한 연구(인위교배 실험)를 수행하여, 각 분류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 및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A. chiisanense*는 잎의 형태에 있어 뚜렷이 구분되며 다른 종들과 완전히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류군은 독립된 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jaluense*는 *A. uchiyamai*, *A. triphyllum*, *A. proliferum* 및 *A. pseudoproliferum*과 잎의 결각 상태 및 암술 표면에 선모가 밀생하는 점에서 이들 종들과 구분되었으며, 또한 이들 종들과 생식적으로 어느 정도 격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 uchiyamai*, *A. triphyllum* 그리고 *A. pseudoproliferum* 및 *A. proliferum*은 잎 및 꽃의 형태에 있어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생식적으로 서로 거의 격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분류군의 정확한 유전적 분화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isozyme 분석을 현재 수행 중에 있다.

A219

한국산 쇠뜨기말목(Characeae) 식물 수종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

최광철*, 김영환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한국산 윤조식물은 Morioka(1941)에 의해 최초로 기재된 이래 Imahori와 Choe(1963)에 이르기까지 2속 16종이 보고되었으나, 지난 30여년간 분류 및 분포론적 연구가 전무하여 그 자세한 규모와 실체를 이해하기에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토록 생물다양성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국산 윤조식물의 종류상을 명확히 밝히고자 1993년부터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윤조식물을 채집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8종의 출현을 보고한 바 있다(최광철 등, 1994, 1995).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쇠뜨기말속의 3 미기록종(*Chara corallina* Willdenow var. *kyusyensis* Imahori, *C. fibrosa* Agardh var. *microstephana* Imahori, *C. fibrosa* Agardh var. *minuta* Imahori)과 갈래말속의 1 미기록종(*Nitella megacarpa* T.F. Allen var. *japonica* Imahori)이 추가로 동정되었기에, 이들의 형태분류학적 고찰과 함께 한국산 윤조식물로 보고하고자 한다.